

국민경제 자문회의	보 도 참 고 자 료	작 성	강길성(02-731-2420)
			임상준(02-731-2440)
		보도일시	2013.5.29(수) 10:00부터
		배 포	
박근혜 대통령,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위촉과 1차회의 주재			

1

국민경제자문위원 위촉과 1차회의 개최

-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5.29일(목),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(의장)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, 국내외 민간·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
-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,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하여 새로이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음

2

새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특징

- 새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서, 이전 정부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수행
- 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에 걸맞게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의 기능을 할 것임
-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,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가 있었으나, 이들을 모두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성격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출범하는 것이라는데 의의

- ②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“위원회의 위원회”로서의 역할을 담당
- 새 정부는 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 하에, 경제부흥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, 경제민주화, 민생경제를 제시
 - 이번에 구성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창조경제, 민생경제, 공정경제, 거시금융의 4개 분과로 구성된 만큼,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정부정책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
- ③ 자문회의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
-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기능을 넘어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
 -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·분석하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점검·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·개선방안을 제시하고, 현장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들과 정부간의 가교역할
- ④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역대 자문기구 중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
- 자문위원에는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
 - 한편 정·관계는 물론 학계·기업계·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하여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

- 이날 회의에서는 i)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의 「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」과 ii) 한국개발연구원 등 4개 국내외 국책·민간 연구기관(한국개발연구원·삼성연·골드만삭스·맥킨지)이 공동 마련한 「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」 등 2개 안건 보고
- *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: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고유기능을 활성화하여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하여 국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보고
- **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: 국내외 민간·국책연구기관이 향후 5년 시계에서 우리경제가 직면할 주요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,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보고

<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>

-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
- ① 경기활성화,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
 - ②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, 정부 협업부처간 가교역할 수행 등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선도
 - ③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정책환류를 위해 국민·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

□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기별 전체회의,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회의, 월별 분야별 회의 개최 등 운영을 활성화

○ 또한, 자문회의 차원의 정책자문보고서와 자문위원의 개별 보고서, 민관 연구기관과의 공동보고서 등 자문활동 내실화

○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단체 등과 공동여론조사,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교육 등 소통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<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>

□ 한국개발연구원 등 4개 국내외 국책·민간연구기관은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대응,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○ 다만, 선진국 양적완화 종료가능성, 엔저의 부정적 영향 등 대외적 위험요인은 상존

○ 반면, 신흥 중산층의 증가(2012년 20억명→2030년 50억명), 인프라 시장 확대(2030년까지 57조달러 예상), 이종 산업간 융합 등 기회요인 존재

□ 국내 경제는 i)요소투입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, ii)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, iii)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, iv)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 둔화

* 경제성장률: 2001~2010년, 4.5% → 2011~2020년, 3.6% → 2021~2030년, 2.7%

□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 제시

① (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) 경기둔화 추세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하고,

- 중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하여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외화유동성·외채관리를 강화

② (성장동력 확충)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“보호에서 육성으로” 과감히 전환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,

-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·고용창출·수출산업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별적·전략적으로 육성*하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

* 예 : 보건의료, 사회복지, 관광, 플랜트엔지니어링 등

-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, 중장년, 외국 인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

③ (안정적 성장기반 강화)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하여 복지정책의 초점을 “근로와 자립 지원”에 두고,

- 교육·보육 등 “계층상승 사다리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인적 복지 투자를 과감히 확대

- 주거비, 사교육비 등 가계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부문의 건전성을 제고

④ (정부·공공부문 혁신) 복지지출 증대 및 정부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·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지출은 줄이고 성과는 제고

- * 이스라엘은 국방분야의 효율성 개선 금액만큼 재무부에서 예산을 추가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국방비 대비 국방력의 효과성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선

- * <참고> 1. 민간자문위원 약력
2.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요

참고 1

민간자문위원 약력

□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

성명	현직위	주요경력
현정택 (64세)	인하대 국제통상학부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제학과,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(KDI) 원장

□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

성명	현직위	주요경력
최원식 (45세)	맥킨지 한국사무소(대표) 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美프린스턴대 기계/항공우주공학과, 와튼스쿨 MBA Honeywell 엔지니어,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
김대호 (53세)	인하대 언론정보학과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언론정보학과, 버밍엄대 언론학 박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,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
손양훈 (55세)	인천대 경제학과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세대 경제학과, 플로리다대 경제학 박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,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
윤창번 (59세)	김&장 법률사무소 (고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산업공학과,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하나로텔레콤 회장,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
이성용 (51세)	베인&컴퍼니 한국사무소(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美웨스트포인트 우주항공공학과, 하버드대 MBA 美항공우주국(NASA) 엔지니어, AT Kearney 서울지사장
허은녕 (49세)	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자원공학과, 펜실베이니아대 자원경제학 박사 지속가능발전의 에너지·산업전문위원회 산재에너지기술정책연구센터장
현대원 (49세)	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강대 신방과, 템플대 텔레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, 한국영상자료원 이사

□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

성명	현직위	주요경력
안상훈 (44세)	서울대 사회복지학과(교수) 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사회복지학과, 스웨덴 옉살라대 사회학 박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, 인수위 고용·복지분과 전문위원
김경환 (56세)	서강대 경제학부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강대 경제학과,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한국주택학회 회장,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위원
김동환 (55세)	안양대 무역유통학과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축산학과,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입법자문위원,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
김현아 (44세)	한국건설산업 연구원 (연구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천대 도시계획학과, 가천대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,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위원
문형표 (57세)	KDI (선임연구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세대 경제학과,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,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

성 명	현 직 위	주 요 경 력
손원익 (54세)	한국조세연구원 (선임연구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윌리엄펜 칼리지,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재정학회 회장,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
유경준 (52세)	KDI (선임연구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제학과, 코넬대 경제학 박사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,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
유길상 (60세)	한국기술교육대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대 경제학과,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위원, 고용보험평가위원회 위원장

□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 위원

성 명	현 직 위	주 요 경 력
서동원 (61세)	김&장 법률사무소 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전자공학과·법학과, 한양대 법학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, 서울대 산업공학과 객원교수
김세종 (53세)	중소기업연구원 (연구본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북대 경제학과, 전북대 경제학 박사 (사)창업진흥원 이사, 중소기업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
김창준 (74세)	(사)김창준 정경아카데미 (이사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가주대 토목공학과, 한양대 정치학 박사 美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바 시장, 美하원의원(3선)
신인석 (48세)	중앙대경영학부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제학과,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KDI 연구위원,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
이석근 (50세)	롤랜드버거 컨설턴츠 코리아 (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강대 경영학과, 시카고대 MBA 액센츄어 컨설팅 글로벌 파트너, 아서디리틀(ADL) 아시아 총괄대표
이장우 (56세)	경북대 경영학부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영학과,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한글과컴퓨터 이사회 의장, 중소기업 학회장
정규재 (56세)	한국경제신문 (논설실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대 철학과,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학 석사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,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

□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위원

성 명	현 직 위	주 요 경 력
정갑영 (62세)	연세대학교 (총장) 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세대 경제학과,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, 사립대총장협의회 부회장
박영석 (53세)	서강대학교 (경영대학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영학과,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박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이사,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
박재현 (51세)	매일경제신문 (상무이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외대 영어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,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
안덕근 (45세)	서울대 국제대학원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국제경제학과, 미시간대 경제학·법학 박사 KDI 정책대학원 교수,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
이상빈 (61세)	한양대 경영학부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영학과, 뉴욕대 경영학 박사 한국증권학회 회장,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
조동철 (52세)	KDI 정책대학원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경제학과,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재경부장관 자문관, 미래기획위원회 위원
조윤제 (61세)	서강대 국제대학원 (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대 무역학과,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경제보좌관, 駐영국 대사

□ (설치근거)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

* 헌법 제93조제1항 :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

□ (기능) 대통령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(법 제2조)

-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
- 국민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
-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수립
-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

□ (구성) 대통령(의장), 부의장 1인, 30인 이내의 민간위촉위원, 5인 이내의 당연직*위원, 중앙행정기관장·출연연구기관장 등 사안별 지명위원으로 구성 (법 제3조)

* 경제부총리·경제수석(법률) 미래부장관·대통령비서실장·미래전략수석(운영규정)

□ (회의)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(분야별회의)로 구분 (법 제6조)

-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감안하여 창조경제, 민생경제, 공정경제, 거시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

□ (지원단운영) 자문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지원단을 설치 (운영규정 제3조의5)

- 민간기관·연구소·기업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